

나의 〈稀貴本〉

梁 秉 祐

책이란 나온지 오래 될수록 亡失되어서 드물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年代가 오랜 것일수록 稀貴本이 될 公算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 된—따라서 별로 남아있지 않은 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존중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가장 오랜 寫本, 가장 오랜 活字本쯤 되면 그것만으로도 가치있다고 할 터이지만, 책이 드문데다가 그 內容이 또한 귀중한 것이라야 진짜 稀貴本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그 값도 따라서 비싸지게 마련이다. 선비라는 名詞엔 가난하다는 形容詞만 어울린다는 법이 있으랴 마는 부득이 가난한 선비이지 않을 수 없는 요즘 그런 책이 나와 因緣이 있을 까닭이 없다. 또 稀貴本으로 읽든 싸구려 刊本으로 읽든 그 內容에 조금도 다름이 없는 바에야 구태여 稀貴本을 가지려고 기를 쓰는 것은 선비로서 잘못될 마음 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朱子가 베낀 論語—그런 책이 있다손 치고—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따금 눈요기만 하느니 보다는 廉價版의 論語를 熟讀하는 것이 백번 천번 낫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은가.

내가 이야기하려는 책은, 그러니까, 비싼 책도 아니거니와 그 內容이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다. 四六版 八〇面の 조그만 洋書, 刊行된 것도 前世紀 九〇年代 中葉이니 기껏 七〇年前 밖에 안된다. 그런데도 감히 稀貴本을 云謂하는 것은 그 책에 페비언 協會 圖書館의 藏書票가 붙어 있기 때문이

※ 필자: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교수. 사학전공. 문리대 도서관장

다. <The History of the poor Law>라는 題目에는 古代의 그리스를 다루는 나로서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그 藏書票에 興味를 느껴 사 들인 것이었다. 버나드·쇼우나 H.G 웰즈 또는 시드니·웹 夫妻 같은 쟁쟁한 會員들이 눈여겨 보았고 어찌면 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때는 六·二五 直後, 내가 木浦에서 中學校 教師로 있던 젊은 時節의 일이다. 어디서 어떻게 굴러 오는지는 몰라도 그 때는 별아별 책들이 가마니에 담겨서 그 곳으로 내려왔고 싸구려로 마구 팔고 있었다. 심지어는 길가에 거적을 깔고 팔기까지 하였다. 그 때 산 것중의 하나가 그 책인 것이다.

그 뒤 그 책을 읽지 않았거니와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간혹 눈에 떠면 그 藏書票를 본대든지 첫머리에 실린 그림들이나 보았을 뿐이다. 그 그림의 하나는 著者 거트루드·그린 女史의 肖像畫이다. 소박한 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女子, 憧憬이 서린 듯한 야릇한 눈매가 印象的인 얼굴이다. 이 글을 쓰게 되어 비로소 그 책을 읽고 女史의 略歷도 알게 되었으니 모처럼의 稀貴本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일까. 目次 앞에 실린 짤막한 序言에 의하면 그린 女史 역시 페비언協會 會員으로서 1894年 5月 첫 아들을 낳은 이틀 뒤 29세의 젊은 나이로 作故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生年을 逆算하면 1865年 이 된다. 쇼우가 1856年生, 웰즈가 66年生, 그리고 웹이 59年生이므로 그들과 같은 世代에 속한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福祉國家 英國을 가져오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한 世代인 것이다. 그린 女史이 눈에 서린 憧憬은 보다 나은 未來를 꿈꾸는 것이요 一沫의 야릇함이 깃든 것은 쇼우나 웹 처럼 그 꿈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마련인 서러움을 豫示하는 것일까.

페비언協會가 정식으로 設立된 것은 1884年, 그러니까 女史의 나이 19세 때의 일이다.

그 2年前에 結成된 理想主義的인 모임인 新生活協會의 會員중 그 個人主義的 精神主義的인 改革 方針에 不滿을 가진 사람들이 立法을 통한 社會改革도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社會問題 研究를 위한 團體를 結成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傾向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調查, 研究, 討議하였으므로 그 思想이 統一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議會를 통한 漸進的

인 社會 改革이라는 基本路線이 뚜렷하여 졌다. 階級鬭爭과 暴力革命을 주축돌로 하는 共產主義에 대하여 社會主義와 民主主義를 잇는 方式이 摸索된 것이었다. 그 結實이 89年에 發表된 이었다.

<Fibian Essays in Socialism>이었다. 그린 女史의 25세 때의 일이었으니, 이 무렵에는 이미 協會에 加入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研究할 뿐 아니라 그 思想을 <浸透>시킨다는 協會의 方針 그대로 그린 女史는 테트포드 地區의 勞動者를 啓蒙하고 勞動組合의 組織擴大에 盡力하였다. 그래서 그 地區에서 貧民救護委員으로 選出되기도 하였다. 젊고 아름다운 知識 女性의 이런 活動은 당시로서 括目할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조그만 책에 실린 글들은 그 때 女史가 勞動者들의 모임에서 한 演說의 草稿들이다. 책의 題目으로 된 글을 비롯하여 An Appeal for Trade Unionism Woman and Labor Politics, Poetry and Progress 등 모두 四篇이 收錄되어 있는데, 女性의 政治參與를 呼訴한 演說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서는 傑作에 속하지 않은가 싶다. 婦人勞動者와 勞動者의 아내들의 비참한 運命을 感動的으로 이야기한 다음 어머니들인 그녀들에게 英國의 將來가 달려있다고 하여 行動에 呼訴하는 빈틈없는 論旨는 煽動的이라고 할만큼 잘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煽動만을 目的으로 한 것은 아니고, 女史의 理想主義的인 純情이 거런 感鳴을 불러 이르는 것이다. <詩와 進歩>라는 글에 알 수 있듯 그린 女史는 詩作도 하는 多情多感한 女性이었다. 그 책 속에는 몇篇의 作品이 들어 있는데 그 하나를 紹介하면,

<그대와 나>

자라난 自然의 품에 안길 때는
두 어린이.

一喜一憂할 때는
아직도 少年 少女.

서로 믿고 힘을 다할 때는
진정한 벗.

서로 위안하며 일하고 計劃할 때는

두 男女.

좋은 일 곳은 일 겪을 때는

友愛로 대하고.

奧妙한 삶의 聖所에선

남편과 아내.

이 詩에서 알 수 있듯 남편인 F·E 그린 역시 페비언協會員으로서 둘은 信念과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였던 것 같다. 그 사랑의 結實을 낳으면서 女史가 30歲의 젊은 나이로 아깝게 죽다니 하늘이 그들의 사랑을 부러워한 것일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참으로 책이 하는 구실이란 한결같지 않구나 하는 異常한 感懷에 사로잡혔다. 그린 女史의 조그만 책은 救貧法의 歷史라는 題目이 붙어 있기는 하나, 歷史家의 눈으로 볼 때, 歷史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壓制와 搾取를 糾彈하는 理想主義的인 情熱이 우리를 感動시키지 마는, 그 分野의 研究 論文의 參考文獻에 오를 것이 못된다. 그뿐 아니라, 그런 情熱이 研究의 발판이 된다는 것은 차라리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歷史에서는 道德的 評價—讚揚과 非難—를 삼가는 것이 正道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책에 실린 글들이 본래 勞動者들에게 한 演說이며, 그것으로서는 펴 잘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90年代의 知識人의 그런 活動의 一面을 보여주는 한 例로서 資料的 價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책 속에 그것에 그치지 않는 무엇을 느낀 것이었다. 著者인 그린 女史는 젊은 나이로 作故하였으므로, 페비언協會나 英國 勞動運動의 歷史에 어두운 나로서는 斷定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 큰 발자취를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테면 協會의 歷史속에, 본래 會員數가 적은 團體였으므로, 그 이름이 나타나는 수도 있겠으나, 그 存在가 클로즈업 되는 일은 없으리라. 말하자면 歷史의 方向을 돌리는데 이바지한 無名의 일꾼이라 할 것이다.

어쩌다가 페비언協會의 歷史를 읽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한 卷의 遺著가

없었더라면, 단지 하나의 이름에 그치고 말았을 터인 거트루드·그린이라는 한 女人이 내게 생생하게 되살아나 무엇인가 뜨거운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니, 책이란 참으로 奇妙하고 道貴重한 물건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